

52시간 처벌 유예카드 '고심'...중소기업 56% "준비 안돼"

중기 "대기업도 했는데 우리도 처벌유예"...정부 실태조사 후 결정

유연근로제 추가 확대는 어려워...탄력근로제 국회입법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제도의 보완책을 지시한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50~299인 사업장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 외에는 효과적인 선택지가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 제도가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지적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정부에 제도기간 부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현장의 어려움이 막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6%가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부는 39%만 준비

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현장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제도기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4000개 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해 제도 보완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기에 현재로서는 제도기간 부여를 검토하고 있

다, 하지 않고 있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기간 부여에 미온적인 이유는 자치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초 52시간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 노동시간 기록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 혼란을 감안해 6개월의 기본 제도기간에 3개월의 추가 기간까지 모두 9개월 동안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기피하려는 재계의 시도를 사실상 눈감아줬다며 반발했다.

이번에도 52시간제 처벌이 유예된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탄력근로법안 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노정관계가 또 다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앞서 9개월의 유예를 허용한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보완책은 최대한 제도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마련할 방침"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내비쳤다.

제도기간 부여 외에 정부가 국

회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은 많지 않다.

중소기업들은 처벌 유예에 더해 고용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한 유연근로제 확대 또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 지난 7월 애플리스트·핀드매니저 등 업무로 확대한 바 없어 올해 안에 추가적인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와 반대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부분의 현장 애로는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보고, 정부는 탄력근로제 바깥의 문제를 해결 하길 희망하고 있다.



롯데마트, 루비에스 미니사과 유통업체 최초 출시 10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루비에스 미니사과'를 소개하고 있다. '루비에스 미니사과'는 2004년 '알프스 오프메' 품종과 '산사' 품종을 교배해 탄생한 순수 국내 육성 품종으로 기존 미니 사과의 단점인 맛과 저장성을 보완한 상품이다. 크기는 일반 사과와 비교해 25% 정도에 불과하지만, 당도는 13brix 정도로 일반 사과와 비슷하며, 부드러운 과육과 식감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KDI, 7개월째 '경기부진' 판단... "소비 확대됐으나 수출 위축"

수출감소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확대됐으나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하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와 석유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9월 수출금액은 전월가 유사한 11.7% 감소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돼 5.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96억2000만달러보다 축소된 59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의 모

습이다.

KDI는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광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재고율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뉴스1

벤츠 질주 지속...BMW는 제네시스 제쳐

프리미엄 BIG3 9월 판매실적 단위 대

	19년 9월간	18년 9월간	증감대수	증감율
제네시스	3579	4119	-540	-13.11%
벤츠	7707	1943	5764	296.65%
BMW	4249	2052	2197	107.07%
3브랜드합계	1만5535	8114	7421	91.46%
3브랜드점유율	13.07%	7.43%		

	19년 누적	18년 누적	증감대수	증감율
제네시스	4만4572	4만4563	9	0.02%
벤츠	5만4908	5만2746	4162	8.20%
BMW	3만2261	4만2962	-1만2701	-29.56%
3브랜드합계	12만9741	13만8271	-8530	-6.17%
3브랜드점유율	11.76%	12.06%		

나타났다. 특히 수입차 월별 판매가 2만대를 넘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벤츠·BMW·제네시스 등 프리미엄 빅3 브랜드의 9월 판매량은 1만5535대로 전년 동기 대비 91.46% 늘

었다. 내수시장에서 이들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13.07%로 전년 동기(7.43%)에 비해 5.64%포인트(p) 늘어났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판매 성장이 전년대비 두드러진 데에

1~9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6.17% 줄어든 12만9741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점유율은 전년(12.09%) 대비 소폭 감소한 11.76%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빅3 중 9월 판매량 1위는 벤츠가 차지했다. 벤츠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296.65% 증가한 7707대를 판매했다. 이는 국산차를 포함해 현대·기아차 다음에 해당하는 판매량으로 한때 우위를 점했다. 프리미엄 빅3의 9월 판매량이 1만5535대인 점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빅3 내 벤츠의 판매 비중은 약 50%에 달한다.

9월 국내 승용차 프리미엄 빅3 경쟁에서 독일차의 강세가 이어졌다.

10일 국내 완성차 브랜드 5곳과 수입차 브랜드 23곳의 8월 판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내수 판매

가 차지하는 비중도 13.07%로 전년 동기(7.43%)에 비해 5.64%포인트(p) 늘어났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판매 성장이 전년대비 두드러진 데에

2위는 4249대를 판매했던 BMW가 차지했다. 올해 내내 벤츠와 제네시스에 판매량이 밀렸던 BMW는 9월 올해 처음으로 제네시스 판매량(3579대)을 넘어섰다.

제네시스는 지난 9월 3579대를 판매했다. 제네시스 판매가 3000대선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 처음이다.

하반기 프리미엄차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으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벤츠는 브랜드 첫 순수 전기차 EQC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프리미엄 빅3 9월 1만5535대 판매...벤츠 비중 약 50%

제네시스 올해 첫 3000대로 떨어져...GV80 출시 반등 노력

량은 11만8895대로 전년 동기 대비 8.94% 늘었다. 국산차의 9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37% 늘어난 9만8691대, 수입차 판매량은 17.32% 늘어난 2만204대로

는 지난해 벤츠·BMW가 강화된 배출가스 인증규제 준비와 재고소진 등으로 판매가 부진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다만, 프리미엄 빅3 브랜드의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